

## 투석 환자에서의 다양한 결핵에 대한 관찰

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
김여준, 김문재, 김순혜, 송기산

장기 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세포성 면역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,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결핵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. 국내에서 투석 환자의 결핵 유병율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1990년도 국내 폐결핵 유병률이 전체인구의 1.8 %임을 감안할 때 투석환자의 결핵 발생률은 이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이에 저자들은 1985년도 8월부터 인하대학병원에서 혈액투석중인 환자들과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 및 폐의 결핵의 발생과 이들의 임상상, 치료 및 예후를 분석하였다.

1. 혈액투석 환자 130명과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 79명 중 6.2 %인 13명에서 다양하게 결핵이 발병하였고 (혈액투석 6.9 %,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5.1 %) 이들의 평균 연령은 41.4세 (26-60세)였으며 남자 6명, 여자 7명으로 남녀비에는 차이가 없었다.

2. 투석치료 시작부터 결핵 발병까지의 평균 기간은 24.2개월 (5-58개월)이고, 이들은 속립 결핵 2명, 결핵성 복막염 6명, 결핵성 임파선염 4명, 폐결핵 1명으로 폐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10명 (76.9 %)으로 우세하였으며 원인불명의 발열과 오한, 전신쇠약감, 체중감소, 복부 팽만감과 동통의 주증상을 나타내었다.

3. 치료로는 isoniazid와 rifampin과 pyrazinamide의 6개월 단기 병용요법을 시행하였고, 이 중 7명 (53.8 %)은 완치되었으며 3명 (23.1 %)은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3명 (23.1%)은 치료도중 사망하였다.

따라서 장기 투석 환자에서 결핵 발생은 폐의 결핵 발생이 현저하며 원인불명의 지속되는 발열, 체중감소 등이 있을 때에는 결핵 발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## 혈액투석 및 신이식환자의 혈청 Soluble HLA Class I 항원농도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미생물학교실\*

양철우, 진동찬, 안석주, 김태규\*, 김용수, 한 훈\*, 윤영석, 방병기

Soluble HLA(sHLA) class I 항원은 면역조절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부전환자 및 신이식환자에서의 면역기능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다. 이에 저자들은 만성신부전에서 투석치료에 따른 sHLA class I항원농도의 변화와 신이식후 sHLA class I 항원농도의 신이식후변화와 거부반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 대상환자는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환자(61명)와 이중 신이식을 받은 환자(21명)로 하였다.

(1) 혈액투석환자의 혈청 sHLA class I 항원농도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( $429.2 \pm 391.1$  ng/ml vs  $415.6 \pm 256.1$  ng/ml,  $P > 0.05$ ). (2) 혈액투석환자에서 성별, 나이, 투석기간, 투석전후에 따른 sHLA class I 항원의 혈청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. (3) 신이식후 sHLA class I 항원농도는 유의있는 감소를 보였으며( $574.8 \pm 431.1$  ng/ml vs.  $226.7 \pm 202.8$ ,  $P = 0.0001$ ) 이러한 감소는 혈청 크레아티닌농도의 감소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( $r = 0.16$ ,  $P > 0.05$ ). (4) 급성거부반응을 보인 8예에서 sHLA class I 항원농도의 유의 있는 증가를 보였다( $642.8 \pm 296.1$  ng/ml vs.  $305.5 \pm 194.7$  ng/ml,  $P = 0.0002$ )

이상의 결과에서 sHLA class I항원농도는 신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이식초기에 급성거부반응을 반응하는 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